판결·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양육비 지급을 명해 달라는 상대, 추가로 지급을 강제하려던 요구를 막았습니다.

상대방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기각

신청 기각

양육비 이행명령 방어 · 이행명령 신청 기각 결정

이 유

피신청인의 양육비 이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시의 제재를 통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 기각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024. 8. 12.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양육비 지급 경과를 두고 상대방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현재의 이행 상황에서 새 명령과 제재로 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해결의 핵심

양육비 지급 의무와 지금 별도의 이행명령을 내릴 필요는 다릅니다. 지급 경과와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원래의 양육비 의무나 다른 집행권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해 달라는 상대

상대방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기각.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상대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면
- 미지급액이나 지급 경과에 의견이 다르다면
- 현재 이행 상황을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해율이 함께한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받은 의뢰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이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 별도의 명령으로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신청에 대한 방어 결과입니다.

의뢰인에게 달라진 점

상대방이 요청한 새 이행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이나 기존 의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의무를 지키면서 이번 신청의 필요성을 다퉈 방어한 성과입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상대방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기각.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새 이행명령과 제재가 필요한지 다퉈야 한다면
- 원래 지급 의무와 새 신청을 구분해야 한다면
- 신청에 대응하면서 남은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